

이라크 戰爭의 原因分析

목 차

- I. 서 론
- II. 분석의 틀
- III. 이라크 전쟁의 중간원인: 정책결정자의 인식
- IV. 이라크 전쟁의 근인(近因): 9·11사태와 부시 독트린
- V. 결 론



대위 | 남 승 현
한지단 전투협조관

I. 서 론

전쟁을 연구함에 있어 간과되기 쉬운 점은 전쟁의 수행과정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전쟁 이전의 단계에 소홀하기 쉽다는 점이다. 물론 군인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How to fight)에 집중하고 평시 연마하여, 전시에 빈틈없는 임무수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How to fight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How to prevent,” 어떻게 전쟁을 예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특히 전쟁에 휘말려 승·패를 떠나 잃을 것이 많은 국가일수록 전쟁은 예방 그 자체가 중요하다. 한반도에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도, 보다 더 전력을 강화하는 이유도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여 북한으로부터 시발되는 전쟁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함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전쟁이 시작되면 연합 전력의 승리는 거의 확정적인 것이겠지만 개시 그 자체를 통해 잃을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쟁의 수행과정과 더불어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엄밀히 말하자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과정-에 대한 인과관계의 규명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진다. “도대체 왜 전쟁은 일어나는 것일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만이 전쟁을 예방하는 길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전제로 했을 때 한반도에서 이라크 전쟁 원인 연구는 중요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이라크와 북한은 모두 미국이 2002년 연두 연설에서 선언한 악의 축 국가(Axis of Evils)에 포함되어 있었다. 두 국가는 모두 테러지원국가로 분류 되었으며 전 세계가 경멸하고 있는 WMD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었거나 북한의 경우는 확실히 보유하고 있었다. 두 국가 모두 독재자에 의한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국민들의 인권은 파탄에 이르렀고 두 독재자는 모두 미국에 적대적이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라크에 이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은 것인가? 그러한 가능성은 앞으로도 전혀 없는가? 북한의 혹은 한·미 양국의 어떤 행동이 상호간 자극요인이 되어 전쟁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는 나선형 구도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

이라크 전쟁 전사(前史)에 관한 연구는 위의 질문에 일정부분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주리라고 본다. 흔히들 이라크 다음의 미국의 목표가 북한이 될 것이라는 근거 없던 논리는 이라크 전의 유발과정을 연구를 통해 논리적으로 반증 가능하다. 9·11사태와 부시 독트린이라는 근인(近因)은 동일하게 작용하였을 지라도 그 이전에 분위기를 숙성시킬 수 있는 중간원인(中間遠因)에 대한 배경이 북한에 대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외에 본 연구가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는 부가적인 부분은 역사가 어느 정도 순환된다고 가정 되었을 때, 현재에 논의되고 있던 미·북간의 관계가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예상치 않는 근인에 의해 중간원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먼저 전체적인 본 논문의 분석 틀이 되는 다음의 글을 시작으로 본 논문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II. 분석의 틀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이론적 가정과 가설의 도움 없이 사실들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사건 전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기술도 국제정치이론과 마찬가지로 개념화와 이론적 일반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이 없고, 단지 이론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정도와 방식의 양 분야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¹⁾ 특히 전쟁의 원인을

주 1) 김영호, “외교사와 국제정치이론 사이의 학제간 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집 2호, p.196.

연구하는 전쟁사적 연구에서는 논문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체계, 즉 분석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글은 연대기적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 인과관계의 분석의 틀을 연대기적 기술이 아닌 이론적 체계를 갖추어 **원인(遠因)**, **중간원인(中間原因)**, **근인(近因)**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역사적 사건의 원인을 시간대별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일본열도가 바다 위로 솟지 않았다면,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태평양 전쟁도, 이라크 전쟁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해 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원인(原因)을 보통 **원인(遠因)**으로 칭한다.²⁾ 물론 전쟁의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면 끝임이 없고 그렇기에 과연 인과관계 규명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가들은 역사적 인과관계를 규명함에 있어 “**적절성 체감의 원리**”(principle of diminishing relevance)를 적용한다. 원인과 결과를 갈라놓는 시간 간격이 클수록 원인으로서는 적절성이 떨어진다는 원리다. 대체로 이러한 적절성 체감의 원리를 기준으로 역사가들이 원인과 증인과의 차이를 구분하게 되는 것이다.

중간원인(中間原因)은 보통 ‘중간성’이 차지하는 영역이 충분히 커서 원인(遠因)과 비교하여 무시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중간원인은 근인처럼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함에 있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는 못하나, 반면 이러한 중간원인이 없는 경우 근인도, 또 사건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즉, 중간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이 일어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사건도, 근인도 반드시 중간원인이 있어야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원인과 중간원인의 설명에서 일부 설명된 것처럼, **근인(近因)**은 쉽게 말하면 사건과 가장 근접한 직접원인이고 달리 표현하자면 사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직접 원인, 혹은 사건을 촉진하게 된 촉진 원인이 된다.

이러한 원인, 중간원인, 근인을 보다 쉽게 설명하여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다. 방에 불이 어떻게 켜지는지를 가정해 보자. 가장 근접한 원인인 촉진원인은 스위치를 켜기 때문이고, 중간원인은 누군가가 건물에 배선을 설치했기 때문이며, 근원적 원인은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전달하는 방법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또한 1차 세계대전의 예를 들면 원인(근원적 원인)은 세력균형의 구조와 국내정치체제의 변화였다. 그 중 특히 중요한 원인은 독일의 국력 증가, 양극 동맹체제의 발전, 민족주의의 출현, 그것에 의해 쇠락

주 2) Ibid, p. 148.

하던 두 제국의 멸망, 그리고 독일정치에 있었다. 또한 중간원인은 독일의 정책, 평화에 대한 자만의 증가, 그리고 지도자의 개인특성이었다. 마지막으로 근인(촉진원인)은 세르비아의 테러리스트가 사라예보에서 페르난트를 암살한 사건이었다.³⁾

위의 설명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전쟁의 원인을 설명함에는 원인, 중간원인, 근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원인은 너무도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를 규명해 내는 적절성이 체감 되므로 일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우리가 태평양 전쟁의 인과관계를 규명해 내기 위해 일본열도가 상승한 이유를 분석해 낼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이라크 전쟁을 분석하기 위해 후세인이 왜 태어났는지, 이라크라는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까지 관심을 둘 필요는 없는 것도 이와 같은 논리를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근원적인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중간원인가 근인을 기준으로 이라크 전쟁의 前史를 기술해 보고자 한다.

Ⅲ. 이라크 전쟁의 중간원인 : 정책결정자의 인식

이라크 전쟁이 테러와의 전쟁과 직결되어 실시되었다는 가정은 다음에서 기술될 이라크 전쟁의 원인(遠因)을 살펴보면 분명해 진다.

사실 이라크 전쟁결정의 핵심에 존재했던 신보수주의자들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1991년 걸프전쟁에서 사담 후세인을 권력에서 쫓아내지 않고 군사작전을 종결한 데에 크게 실망하였다. 이에 대한 불만은 그 뒤로 신보수주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논쟁적인 쟁점을 이루게 된다. 예컨대, 1992년 당시 국방부 정책차관이었던 울포위츠의 주도하에 국방계획지침(Defense Planning Guidance)보고서 초안이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의 출현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라크 전쟁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보고서의 초안은 그 내용이 뉴욕타임스지에 유출되면서 결국 정식 보고서로는 채택되지 못했다.⁴⁾

사실 미국은 걸프지역의 균형과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중동지역의 안정화 세력으로서의 이라크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이라크라는 국가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족주의를 앞세운 후세인 정권만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주 3) 나이 저, 양준희 역, 『국제분쟁의 이해 : 이론과 역사』(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0), pp. 116~117.

4) Ivo H. Daddler, and James M. Lindsay, America Unbound : The Bush Revolution and Foreign Policy(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3), p.41.

되었다.⁵⁾ 키신저는 당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라크 내 엘리트의 쿠데타에 의한 후세인 정권의 전복이었다고 말한 바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후세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적으로 더욱 강력한 입지를 굳혀갔다.

그러나 후세인이 권좌에 남아있는 한 이라크는 미국식 가치의 투영을 거부하면서 계속적으로 미국에 적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프지역의 장벽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걸프 지역은 미국과 다른 산업 민주주의 국가들의 중요한 국가이익이 존재하는 곳으로, 그 지역이 이라크와 같이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 장악된다는 것은 미국에게 있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⁶⁾

이라크에 대한 논의는 이후 지속되었는데 클린턴 행정부 시기부터 대 이라크 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예컨대, 1998년 2월, 캐스퍼 와인버거, 프랭크 칼루치, 로널드 럼스펠드 등 국방장관을 역임한 유명 정치인들을 비롯해 40명의 저명인사가 서명한 공개편지가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는데 이 공개 편지에서 “사담은 공포정치로 지배한다. 이런 야만적 폭력으로 모의나 쿠데타가 성공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지만, 그 대가로 사담은 국민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전국적으로 봉기를 기도해볼 만한 기회가 무르익었다.”라며 덧붙여 INC를 이라크 임시정부로 인정하고, INC가 이라크 북부에 거점을 다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권고하였다. 또한 걸프전 당시 동결시킨 이라크 자산(약 15억 달러)을 해금시켜 임시정부를 지원하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그로부터 8개월 후에는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압력을 통해 이라크 저항세력을 군사적으로 훈련시키고 군 장비를 지원하는데 9천 7백만 달러를 할당하기로 한 ‘이라크 해방법’에 서명케 하기도 하였다.⁷⁾

클린턴에게 이라크 반군세력의 지원을 촉구한 1998년의 공개편지에 서명한 사람들 중 서넛이 현 부시 행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다. 예컨대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 폴 울포위츠 전 국방차관, 더글라스 페이스 정책담당 국방차관이 그런 인물이다. 이들의 영향력은 9·11 이후 훨씬 증대되었는데 이들이 사담 후세인에게 마땅한 행동을 취해야 하고, 테러와의 전쟁에서는 예방전쟁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사람들이었다.

또한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 : Project for the New American

주 5) Henry Kissinger, Does America Need a Foreign Policy? : Toward a Diplomacy for the 21st Century(Touchstone, 2002), p.189.

6) 이진수,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수행에 관한 연구,” 『평화연구』 제13권 1호, 2005, p.189.

7) 시모어 M. 허시, 강주현 역, 『지휘계통』(서울 : 세종연구원, 2004), pp.237-238.

Century)⁸⁾에서 2000년 9월 펴낸 “미국 방위의 재건 : 새로운 세기를 위한 전략, 힘 그리고 자원”이라는 전략 보고서에서는 후에 거론될 선제공격독트린의 기초적인 내용들이 이미 상당수 거론되고 있었다.

위의 내용들을 근거로 했을 때, 이라크 전쟁의 핵심 정책결정자들이었던 부시행정부 1기의 주요 인사들은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제거 1순위로 생각해 왔음이 분명해 진다. 이들은 클린턴 행정부 집권시기에 지속적으로 이라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해 왔으며 각종 정책보고서, 별도의 회합 등을 통해 후세인 정권 제거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이들은 결정적인 계기가 닥쳐왔을 때, 그리고 그러한 계기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을 때 언제라도 이라크를 공격하여 후세인 정권을 제거할 사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이라크 전쟁의 원인을 충분히 설명해 낼 수가 없다. 한 정권에 대한 핵심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한다면 이는 논리성을 결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냉전기간 지속적으로 대립되었고 상호 적대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미-소 간에는 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한반도에서의 남-북 전쟁은 또 왜 일어나지 않았는가? 바로 이러한 불충분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 사건과 가장 근접한 원인, 근인 및 촉진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IV. 이라크 전쟁의 근인(近因) : 9·11사태와 부시 독트린

1. 9·11 사태

앞에서 이라크 전쟁의 원인(遠因)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의 글에서 살펴 본 것처럼 제1기 부시대통령 임기의 핵심 정책결정자(decision-maker)였던 체니 부통령, 럽스펠드 전 국방장관, 울포위츠 전 국방부 차관을 포함한 강경파들은 걸프전 이후부터 이라크 정권교체 및 사담 후세인 정권 전복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집권이 이라크 전쟁의 근인 혹은 특이원인은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이 아무런 명분 없이 전

주 8) 1997년 결성된 PNAC의 창립멤버는 체니 부통령, 럽스펠드 국방부장관, 울포위츠, 댄 케일 전 부통령, 후쿠야마, 칼 릴자드, 루이스 립비 등 현 부시행정부의 가장 영향력 있었던 강경파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망라한다.

쟁을 개시할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2001년 9월 11일의 전대미문의 테러사건과 2002년 6월 선제공격전략의 공식천명으로 일소된다.

2001년 9월 11일은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된다. 최종 집계에 따르면 그날의 공격으로 세계 무역센터에서 2,792명, 펜타곤에서 184명,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주 생스빌에 추락한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에서 40명이 숨졌다. 다음에 인용되는 몇 개의 글에서 당시의 상황을 미국인, 대통령, 군인 등이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상황이 진전될 것인가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우리 각각의 마음은 무엇인가 변해 있었다. 마치 우리 모두가 2001년 9월 11일 아침에 방사능이라도 쬐 것처럼 우리의 심리구조 - 우리 마음의 DNA가 뒤틀려 앞으로 한동안 확실치 않을 것이었다.”⁹⁾

개디스라는 저명한 외교사가는 미국인의 DNA가 9·11사태로 인해 일순간에 뒤틀려 버려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 것이라는 표현으로 미국인들의 당시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당시의 상황에 대해 한 미 육군 장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만약 21세기의 안보문제에 미 육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의구심이 있었더라면, 4대의 항공기가 미 본토를 지향한 대량살상무기로 바뀌었던 2001년 9월 11일에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실제로 미 육군은 이미 이 날 진격명령을 수령하였다.”¹⁰⁾

위의 인용문은 전쟁을 수행하는 당사자인 미군들이 9·11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9·11사태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대 국민 연설 내용이며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인들은 묻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나라를 공격했는가? 우리가 모은 증거는 이미 그것이 알카에다로 알려진 테러리스트 조직의 소행이라는 것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테러와의 전쟁은 알카에다를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테러와의 전쟁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지구상의 모든 테러리스트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멈추게 하고 패배시킬 때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테러리스트들은 단지 사람을 죽이는 데에서 끝나지

주 9) John L. Gaddis, Surprise, Security and the American Experience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pp.4-5.

10) 육군교육사령부 역, 『최전선에서 : On Point』, 2006, p.35.

않고 삶의 방식을 무너뜨리고 파멸시킵니다. 그들은 모든 포악한 행위로 미국에 공포가 자리 잡고 우리가 세계에서 철수하며 우리의 우방들을 저버리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길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은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우고 이길 것인가? 우리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이 전쟁을 주도하고 세계의 테러 네트워크를 분쇄할 것입니다. 모든 외교적 방법, 모든 정보수단, 모든 법적인 수단, 모든 경제적 영향력,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무기 등을 모조리 동원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점령지역을 해방시킴으로써 신속하게 종결되었던 10년 전 이라크 전쟁과는 전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위의 인용구에서 볼 수 있듯이 9·11테러는 미국인의 정서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미국민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분노였고, 그 분노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는 순간 예측할 수 없었으며-분명한 것은 어딘가로 확실히 향해야만 했다는 점이다 - 군인들에게는 어떤 대상이라도 목표로 삼아 출격해야 하는 진격명령이었으며, 미 대통령에게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즉, 9·11테러는 이미 전쟁개시에 있어 당시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수많은 중간원인(中間遠因)을 내재하고 있던 이라크를 지향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직접적인 근인(近因) 중 하나임에 분명하였다. 그러나 이 자체가 이라크 전쟁을 향한 임계상황을 지난 것은 아니었다. 9·11 직후 미 행정부의 전쟁의 결심 수립절차를 살펴보면, 9·11 사태 이후 어떤 목표를 삼아 공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과 그 가운데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이 수차례 목표의 대상으로 논의 되었으나 보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상황은 9·11 사태 다음날인 9월 12일 백악관 내 안보회의의 내용이다.

“립스펠드 장관은 아침 회의에서 제기했던 이라크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였다. 알카에다뿐만 아니라 이라크를 공격하면 어떤가? 하고 물었다. 립스펠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의 의견이 아니라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국방부 장관 폴 월포위츠의 견해를 대변한 것이었다. 월포위츠는 테러전쟁에서 이라크가 첫 표적이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었다.”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 이라크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골칫거리로 대량살상무기를 구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아마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었다. 대규모 대테러전쟁으로 간다면 어떻게 결국에는 이라크가 표적이 될 것이다. 립스펠드가 제기 한 논지는 테러분자들이 빌미를 제공한 이번 기회에 후세인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자는 것이었다.”¹¹⁾

주 11) 군사평론 부록 356호, p.39. 본 군사평론 부록은 워싱턴 백악관 출입기자 밥 우드워드스가 2002년 9월 11일 이후 백악관에서의 전쟁수립결정과정을 취재하여 발표한 것을 번역한 내용이다.

다음은 9월 13일 국방브리핑 상황이다.

“대통령과 그의 팀에게 이라크는 거의 아프가니스탄과 동등한 심각한 문제였다. 교활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생존자인 후세인이 만약 9·11 이후 테러 공격을 감행했거나 미군시설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을 했고, 그에 대응하는데 실패했었다면 그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끝이 없을 것이다. 럽스펠드는 전날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라크 문제를 제기하였고, 지금 일일 브리핑에서 월포위츠가 테러 국가들에 대해 공공연하게 경고함으로써 미국의 첫 번째 표적에 이라크를 포함하도록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¹²⁾

다음의 글은 9·11사태 이후 6일간 지속되었던 백악관 내 논쟁을 부시대통령이 결말을 맺은 부분이다.

부시는 그의 아버지의 적이었던 사담 후세인에 대한 6일간의 논쟁을 종식시켰다. “나는 이라크가 개입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금번에는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계획을 계속 발전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¹³⁾

9·11테러 직후의 6일동안 첫 번째, 테러와의 전쟁의 목표 대상을 선정해 나가는 정책 수립결정과정에서 위의 인용문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이라크는 이미 공격 목표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즉, 9·11테러가 하나의 근인으로 작용되어 이라크 전쟁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1차 목표의 논의는 앞에서 인용된 부시의 판단으로 우선 종식되게 되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종료되는 대로 꺼지지 않는 미국민의 분노가 이라크로 향하는 것은 정책결정자들의 논의를 분석해 보았을 때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2. 부시 독트린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수행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루고 난 뒤였지만, 테러종식을 위한 미국의 예봉은 여전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손쉽게 종료되었지만 냉정하게 표현하면 테러와의 종식과는 거리가 먼 결과물이었다.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켰으나 은둔해 있던 빈 라덴은 색출해 내지 못했을뿐더러 전쟁을 통한 핵심목표 색출은 사실 계획단계부터 이미 곤란함을 내포하고 있었다. 미국민과 정책결정자는 보다 확실

주 12) Ibid., pp.51.

13) Ibid., pp.88.

하고 가시적인 목표를 원하였으며 그 방향성은 자연스럽게 9·11 직후부터 첨예하게 논쟁의 대상으로 떠오른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으로 향하게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카에다 기지가 아프가니스탄을 근거로 하고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대량살상무기의 의혹만 있었던 이라크 전쟁**은 본질적으로 같은 상황은 아니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내용은 국제법상에 자위권에 명백하게 해당된다고 인정되었으나, 9·11 테러에 이라크가 명백하게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었던 국제사회로서는 당시의 기준으로 이라크를 공격한다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무리수였다. 바로 당시의 이러한 논쟁을 불식시키며 이라크 전쟁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선제공격전략으로 불리는 부시독트린의 공식적인 천명이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전 후 2002년 9월 20일에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 :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United States)를 발표했다. NSS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위협 제거를 국가안보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필요시 단독행동 및 선제공격불사, 그리고 이를 위한 반테러 국제연대 및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공세적인 안보전략을 제시했다. 이러한 내용중 전쟁시 미국의 단독행동을 불사하며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추가 되어 ‘선제공격독트린’ 및 ‘부시독트린’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다.¹⁴⁾

문제의 이 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서문과 9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v항의 “적들이 대량살상무기로 미국과 동맹국, 우방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기”(Prevent our enemies from threatening us, our allies, and our friends with weapons of mass destruction)에 선제공격전략에 대한 핵심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전통적인 역지의 개념은 테러리스트 등 현재의 적에 대해서는 작동하지 않는다.(중략) 여러 세기 동안 국제법은 국가가 임박한(imminent)공격의 위협을 보이는 세력에 맞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공격을 당하기 전에 합법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법학자와 국제법의 사법관들은 흔히 선제의 정당성을 임박한 위협의 존재, 가장 흔하게는 공격을 준비하는 적의 육·해·공군력의 가시적인 동원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임박한 위협이라는 개념을 오늘날의 적들의 역량과 목표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 불량국가와 테러리스트들은 재래식 수단을 사용해 우리를 공격하려 하지 않는다.(중략) 미합중국은 오랜 동안 스스로의 국가안보에 가하는 위협에 대항하기 위하여 선제적 행동’(preemptive action)을 하나의 대안으로 유지해 왔다. 가장 큰 위협은 아무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이며 비록 적의 공격에 대한 시간과 장소의

주 14) 김성한, “미국 신보수주의 외교이념의 구성과 주장,” 남궁곤 편, 『네오콘프로젝트』(서울 : 사회평론, 2005), p.181.

여부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선제적 행동(anticipatory action)을 취하는 것이 낫을 것이다.¹⁵⁾

미국은 이러한 부시독트린을 통해 9·11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잠재적 테러를 막기 위한 테러지원국에 대한 전쟁의 논리를 구비하게 된다. 사실 이러한 논리는 다분히 9·11 직후부터 논의되어 왔던 이라크를 겨냥한 내용이었으며, 부시 독트린은 결국 이라크 전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직접적인 근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V. 결 론

이라크 전쟁 전사를 중간원인 및 근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해 보았다. 부시 행정부 1기의 강경파들은 이미 클린턴 행정부시기부터 정책연구소에서, 재야에서 활동하며 이라크에 대한 온건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울포위츠는 특히, 91년 걸프전에서 사담후세인 정권을 전복하지 않은 것을 정부의 큰 실수로 간주하여 정권전복에 대한 끊임없는 주장을 해왔고 9·11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럽스펠드 전 국방장관과 함께 이라크를 공격할 것을 집요하게 주장해 왔다.

이러한 강경파의 노력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관철되었으며 부시독트린의 천명을 통해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다. 그렇다면 혹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라크와 같이 테러지원국에 포함되어 있고 2002년 국정연설에 악의 축 국가의 하나로 지목되었던 북한은 왜 미국이 공격하지 않는 것일까? 실제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라크 전쟁이후의 새로운 목표는 북한이 될 것이라고 선부른 예측을 했던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전, 현 부시행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단 한 번도 선제적 무력 사용을 심도 깊게 고민해 보지 않았던 국가이기도 하다. 전쟁 비용과 동맹국의 안위 등 이라크와는 다른 수많은 상이한 변수들이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즉, 중간원인으로서의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이 전쟁을 유발할 만한 특정 작용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큰 것이다. 또 현실적으로 제약이 되는 요소도 이 외에 다양하다.

필자는 서두에서 전쟁 전사를 기술하는 주된 목적을 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라크 전쟁 전사에 비추어 한반도는 북한의 무력 남

주 15) www.whitehouse.gov/nsc/nss.pdf (검색일 : 2005년 4월 3일).

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북한 핵 개발 등,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응한 미국의 선제공격 위협은 전혀 없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미국의 민주당 집권 시, '94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위협 수위가 높아져 갈 때,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미국에 대한 선제 타격을 심각하게 고려한 바 있다. 미 국방장관 및 예하 참모들이 실제 공격계획을 수립하여 여러 방안을 검토하던 중 카터 전 대통령에 의해 극적으로 북핵 위기가 타결된 바 있다. 당시 상황은 현 부시 행정부하에서 북한 핵실험, 고농축 우라늄 의혹 등에 비하면 오히려 경감된 의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책결정자들은 무력의 선제사용을 심각하게 고려했었던 것이다. 향후 부시행정부 2기 종료 후 민주당이 재집권한다고 가정한 상황에서 당시의 정책결정에 참여했던 인사들 혹은 이를 뒷받침 했던 싱크 탱크들의 정책조언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북한이 또 한 번 핵이라는 카드를 들고 보다 수위를 높여가며 국제적 협상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상황은 어떻게 진전될지 모른다. 바로 이러한 점이 과거의 역사를 체계적 기준을 두고 분석해 내는 본질적 이유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군사평론 부록 356호. 『9·11사태이후 미국의 전쟁결심과정』. 2002.
2. 김성한. “미국 신보수주의 외교이념의 구성과 주장.” 남궁곤 편, 『네오콘프로젝트』 (서울 : 사회평론, 2005).
3. 김영호. “외교사와 국제정치이론 사이의 학제간 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집 2호.
4. 시모어 M. 허시, 강주현 역. 『지휘계통』(서울 : 세종연구원, 2004).
5. 조지프 나이 저, 양준희 역, 『국제분쟁의 이해 : 이론과 역사』(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0).
6. 육군교육사령부 역. 『최전선에서』. 2006.
7. 이진수.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수행에 관한 연구.” 『평화연구』 제13권 1호. 2005.
8. Gaddis, John L. Surprise, Security and the American Experience(Cam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9. Daddler, Ivo H,and James M. Lindsay. America Unbound : The Bush Revolution and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3).

www.whitehouse.gov/nsc/nss.pdf (검색일 : 2005년 4월 3일)